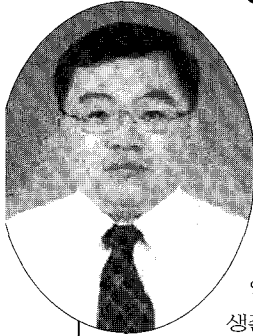


발명칼럼

21세기 기업 생존의 관건은 특허!!!



권 호 진 책임연구원
삼성SDI(주) 중앙연구소

오늘날은 단순한 기술 또는 남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시대에서 생존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다. 과거 10년 동안의 기술 개발 결과가 단지 1년만에 이루어지는 급박한 시대 상황에서 독창적이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화 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영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에는 총, 칼, 대포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힘이었으나, 미래 시대는 아마 특허가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들 한다. 이는 “지식”, “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하며, 기업 활동에 있어 이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에 생존여부가 판가를 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기업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노력과 자본을 투자한다. 물론 그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렇게 투자된 자본과 노력으로 개발한 제품이 선행 특허로 인하여 상품화에 걸림돌이 된다던가 제품을 판매한 대가로 막대한 Royalty를 지불하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발하지 않는 편이 더 효율적이지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들어 새로운 개념, 방법의 제품들이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 개발 뒤에는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특허가 뒷받침되고 있다.

특허 확보는 기업의 상황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꾸준히 수행되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은 그런 면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즉, 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을 때는 연구 개발비를 많이 투입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제일 먼저 위축되는 부분이 연구 활동 부문이다. 결국, 연구활동이

위축되면 그만큼 특허 확보에 있어 미진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은 그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기술확보, 특허 확보에 문제가 있어, 결국 악순환의 연속으로 경쟁에서 도태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꾸준하게 투자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21세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시대” 또는 “정보화시대” 라고 한다. 정말 정신 없이 변화하는 시대이고,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이다.

나는 21세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특허시대” 라고 표현하고 싶다. 과거에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었지만 미래에는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더 중요해 지기 때문이다.

자료를 정리하다 특허와 관련된, 눈에 띄는 좋은 내용의 글이 있어 잠시 소개하며 본 글을 마치고자 한다. 글의 내용은 “우수 특허 확보를 위한 10가지 전략” 이란 내용인데,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1. 발명가는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연구 개발 전에 선행 기술을 반드시 검색하자
3. 서면 작성 즉, 특허 제انش 작성을 연마하자
4. 특허 관리에 대한 전담자를 구성하라
5. 출원 전부터 변리사와 상담하라
6. 특정 특허법률사무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라
7. 특허법률사무소 직원들과 정기적 기술 미팅을 가져라
8. 출원비용을 아끼지 마라
9. 특허전문인력을 육성하자
10. 멀티시대의 특허 전략은 아이디어의 質!!!